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관련 요인에 대한 메타분석

문동규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A Meta-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Resilience of Childcare Teachers

Dong-Kyu Moon
Division of Child Care Education, Sahmyook Health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지난 10여년 간 국내에서 연구된 석·박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관련요인들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호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큰효과크기를 보였고, 보호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모두 큰 효과크기로 개인특성요인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직무특성요인군, 조직특성요인군 순이었다. 둘째, 보호요인군 중 개인특성요인군의 하부요인의 효과크기는 모두 큰효과크기를 보였고, 조직특성요인군과 직무특성요인군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원장리더십과 정서노동을 제외한 모든 하부요인이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셋째, 위험요인 전체효과크기는 큰효과크기를 보였고, 직무특성 위험요인군인 소진은 큰효과크기, 직무특성 위험요인군인 직무스트레스는 중간효과 크기로 소진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 size of related factors through meta-analysis based on master's theses and doctoral dissertations and academic journal papers studied in Korea for the past 10years in relation to the resilience of childcare teachers. The verific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protection factors was large. In addition, the personality factor group was the largest among the protection factor groups, followed by the job characteristic factor group and the organizational attribute factor group. Second, among the protection factors, all the sub-factors except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factor group-ledger leadership and job characteristic factor group-emotional labor, which showed the medium effect size, showed a large effect size. Third, the overall effect size of the risk factor showed a large effect size.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 factor group-burnout showed a larger effect size than the job characteristic factor group-job stres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ttempted a quantitative integration to examine objective results by integrating the previous studies in relation to the resilience of childcare teachers over the past 20 years.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it provided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policies and policy developments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childcare teachers.

Keywords : Childcare Teacher, Early Childhood Teacher, Daycare Center Teacher, Resilience, Meta-analysis

*Corresponding Author : Dong-kyu Moon(Sahmyook Health Univ.)

email: moon3636@shu.ac.kr

Received July 6, 2020

Revised August 27, 2020

Accepted October 5, 2020

Published October 31, 2020

1. 서론

보육교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한 다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는 교사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불균형을 초래하며, 교사로서의 열의, 의욕, 사기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1]. 특히, 보육교사의 스트레스는 교사와 많은 시간을 함께 생활하며 상호작용하는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의 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조정주와 유명희[2]는 영유아에게 있어 애착관계 형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았고, 남궁기순과 김기선[3]은 영유아에게 비인격적인 언어나 행동과 같은 무례함을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최근 연구 가운데 영유아에 대한 학대 행동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4], 그 문제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가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날 필요성이 요구 되는데, 선행된 다수의 연구 가운데 회복탄력성이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4, 5].

회복탄력성은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으로[6], 타고난 것이 아니라 변화와 도전적 환경에서 긍정적인 적응과 개인의 발달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다[7].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보육교사의 중요한 개인적 자질이며, 교육과정에서도 주목해야 할 교육목표로 직무수행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4], 교수효능감[8], 행복감 증진[9] 뿐 아니라 심리적 소진 감소[10], 영유아에 대한 상호작용의 질 향상[11] 등 보육교사 개인 뿐 아니라 보육의 질적 향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난 10여년 간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연구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대해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으로 양분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보호요인은 크게 보아 개인특성보호요인, 조직특성보호요인, 직무특성보호요인으로 구분된다. 먼저, 개인특성보호요인은 개인의 심리·성격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로 자아존중감, 행복감 등이 보고되고 있고[12, 13], 조직특성은 보육교사 개인이 소속된 조직 내 특성들로 원장리더십, 대인관계, 교사-영유아상호작용, 사회적지지 등이 보고

되었다[12, 14, 15, 16]. 또한 직무특성보호요인은 보육교사로서 갖는 독특한 직무성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효능감, 역할수행, 정서노동, 조직몰입, 직무만족 등의 요인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17, 18, 19, 20, 21].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위험요인 역시 크게 보아 조직특성위험요인과 직무특성위험요인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데, 조직특성 위험요인은 소진, 이직의도 등이 직무특성위험요인은 직무스트레스 등의 요인이 보고되고 있다[22, 23, 24]. 이와 같이 보고된 선행연구들은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각각의 연구의 필요에 따라 몇몇 요인을 선별하여 살핀 단편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선택된 요인들의 효과성을 밝혔다는 점에 긍정적인 반면, 연구마다 다른 관점과 이론적 틀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요인을 살피고 있어 영향력의 실제크기를 밝혀내는 데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메타분석(Meta-Analysis)은 선행된 연구들 가운데 추출된 계량적 연구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실증적 자료를 산출하는 분석방법으로, 상반된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누적되어 갈 때, 특정 연구의 결과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25]. 따라서 본 연구는 2013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 중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수집하여 메타분석 하므로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보호요인으로 구분된 개인특성, 조직특성, 직무특성요인군별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또한 보호요인군 하부요인들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둘째,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위험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위험요인으로 구분된 조직특성요인군과 직무특성요인군의 효과크기는 어떠한가? 이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난 10여년 간 축적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계량적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 어떤 요인들이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보호하고 위협하는 요인지에 대한 종합적 결과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치는 본 연구결과에 따른 보육교사

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 및 관련한 후속 연구에 있어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으로서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자료만을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검색으로 2013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표된 국내의 석·박사 논문 및 학술지를 대상으로 '보육교사-회복탄력성', '영아교사-회복탄력성', '유아교사-회복탄력성' 등을 key word로 사용해 자료를 검색하였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한국학술정보(KSI), 국회도서관 등이 검색엔진으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1차 검색된 자료는 석·박사 논문이 41편, 학술지 논문 41편, 총 82편이었다. 셋째, 1차 검색된 82편의 연구 가운데, 독립요인과 종속요인의 관계에 있어서 상관관계를 통해 설명되고 있는 자료와 효과크기 변환이 가능한 사례수(N)와 상관관계치(r)가 있는 자료. 최소 두 개 이상의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이 포함된 연구를 선정하였으며, 석·박사 논문과 학술지에 중복 게재한 연구는 학술지 자료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연구논문은 석·박사 논문 23편, 학술지 17편으로 총 40편이다.

2.2 자료분석 및 통계분석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보호하는 보호요인과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분류한 후, 영향요인군으로서 개인특성요인군, 조직특성요인군, 직무특성요인군으로 구분 후 각각 요인군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MS Excel 2009을 활용하여 분석 값을 코딩하였다. 코딩 작업의 신뢰도 확보는 연구자 본인과 메타분석 전문가 2명이 사전 협의 없이 각각의 연구물을 랜덤으로 선정하여 코딩한 후, 자료를 서로 비교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메타분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CMA2(Comprehensive Meta-Analysis Version 2)를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 선택은 동질성검사와 이질성검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성이 높은 Random모형을 선택하였다. 효과크기 해석은 95%신뢰 구간을 산정하여 유의성을 확인하였으며, 효과

크기의 해석은 Cohen[26]의 표준화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기준을 따라 .10이하는 작은효과크기로, .10부터 .40이하는 중간효과크기, .40이상은 큰효과크기로 해석하였다. 출판편의(Publication bias)검증은 funnel plot검사, Trim-and-Fill 검사, Orwin[27]의 안전성 계수 검사(Nfs)를 활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보육교사 회복탄력성 보호요인의 효과크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보호요인 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검사 결과 좌측편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 후속 검사인 Trim-and-Fill 검사결과 2개의 연구가 추가되었으며, 연구가 추가 전 효과크기는 .577이었으며, 추가 후 효과크기는 0.541로 큰 차이가 없어 편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 Orwin[27]의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는 508개로 이는 회복탄력성 보호요인 효과크기 0.502가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기요인이 508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회복탄력성 보호요인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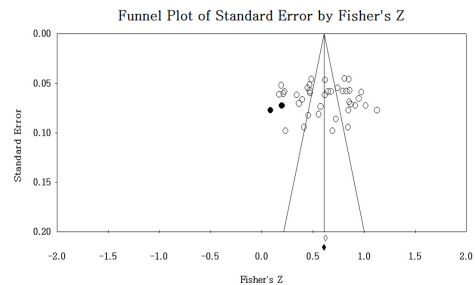


Fig. 1. Publication Bias

3.1.1 보호요인의 전체효과크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보호요인 전체효과크기 값은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0.557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502, 상한값 0.608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2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40보다 크므로 큰효과크기에 해당된다.

3.1.2 보호요인군 별 효과크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보호요인군인 개인특성보호요

인군, 조직특성보호요인군, 직무특성보호요인군은 Table 3에서 보는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모든 요인군이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2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모든 요인군이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군 별 효과크기 차이는 개인특성보호요인군(0.67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비슷한 수준에서 직무특성보호요인군(0.531), 조직특성보호요인군(0.518) 순으로 나타났다 ($p < .05$, $Q^b = 6.719$).

3.1.3 개인특성 보호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보호요인군 중 개인특성 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아존중감, 행복감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2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특성 보호요인군의 하부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Q^b = 2.474$).

3.1.4 조직특성 보호요인군 하부요인 효과크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보호요인군 중 조직특성 보호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5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2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원장리더십(0.338)을 제외한 모든 하부요인이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특성 보호요인군의 하부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2.388$).

3.1.5 직무특성 보호요인군 하부요인 효과크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보호요인군 중 직무특성 보호요인군의 하부요인 효과크기는 Table 6에서 보는바와 같이 모두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2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정서노동(0.225)를 제외한 모든 하부요인이 .40보다 커 큰효과크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 보호요인군의 하부요인 별 효과크기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Q^b = 6.227$).

3.2 보육교사 회복탄력성 위험요인의 효과크기

보육교사 회복탄력성 위험요인의 효과크기에 대한 funnel plot검사 결과 좌우측이 서로 상쇄되어 평균값이 도출 되 편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figure 2). Trim-and-Fill 검사결과 역시 추가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편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Table 7). Orwin[29]의 안전성 계수 검증(Nfs) 결과는 3464개로 이는 전체효과크기 -0.410이 작은효과크기인 .10 이하로 되기 위해, 효과크기 산출결과가 0인 효과크기요인이 3464개 이상 추가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보육교사 회복탄력성 위험요인의 효과크기는 매우 안정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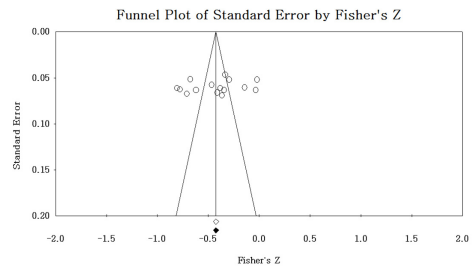


Fig. 2. Publication Bias

3.2.1 위험요인 전체효과크기

보육교사 회복탄력성 위험요인의 전체효과크기 값은 Table 8에서 보는바와 같이 -0.506이며,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 -0.506, 상한값 -0.304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값은 Cohen[2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40보다 커 큰효과크기에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3.2.2 위험요인군별 효과크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위험요인군인 직무특성 위험요인(소진)과 조직특성 위험요인(직무스트레스)은 Table 9에서 보는바와 같이 95% 신뢰구간에서 유의미한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Cohen[26]이 제안한 효과크기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직무특성 위험요인(소진)은 .40보다 커 큰 효과크기를 조직특성 위험요인(직무스트레스)은 .10보다 크고 .40보다 작아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군 별 효과크기 차이는 직무특성 위험요인군인 소진(0.678)이 상대적으로 조직특성 위험요인인 직무스트레스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p < .01$, $Q^b = 7.734$).

Table 1.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Studies Trimmed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Observed values		0.557	0.501	0.608	613.694
Adjusted values	2	0.541	0.483	0.594	694.099

Table 2. Protective factors Overall effect size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value	df(Q)	p-value	I-squared
Protective factors	40	0.557	0.502	0.608	613.694	39	0.000	93.645

Table 3. Effect size by protection factor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Personal characteristics	8	0.678	0.578	0.759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14	0.513	0.415	0.600	6.719	2	0.035
Job Characteristics	18	0.531	0.447	0.605			

Table 4. Personal characteristics protection factors

	Number Studies	Point Estimate	Lower Limit	Upper Limit	Q- value	df(Q)	p-value
Self-esteem	2	0.758	0.638	0.843			
Euphoria	6	0.650	0.567	0.719	2.474	1	0.116

Table 5.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protection factors

	<i>Number Studies</i>	<i>Point Estimate</i>	<i>Lower Limit</i>	<i>Upper Limit</i>	<i>Q- value</i>	<i>df(Q)</i>	<i>p-value</i>
Teacher and infant interaction	5	0.510	0.339	0.649	2.388	3	0.496
Buman relationship	3	0.588	0.386	0.737			
Social support	4	0.539	0.351	0.685			
Ledger Leadership	2	0.338	0.027	0.590			

Table 6. Protection factors for job characteristics

	<i>Number Studies</i>	<i>Point Estimate</i>	<i>Lower Limit</i>	<i>Upper Limit</i>	<i>Q- value</i>	<i>df(Q)</i>	<i>p-value</i>
Teacher efficacy	6	0.630	0.464	0.713	6.277	4	0.179
Role performance	3	0.567	0.353	0.724			
Emotional work	2	0.225	-0.116	0.518			
Organizational commitment	3	0.584	0.374	0.737			
Job satisfaction	4	0.468	0.262	0.633			

Table 7. Duval and Tweedie's trim and fill(Random Effects)

	<i>Studies Trimmed</i>	<i>Point Estimate</i>	<i>Lower Limit</i>	<i>Upper Limit</i>	<i>Q-value</i>
Observed values		-0.410	-0.506	-0.304	263.904
Adjusted values	0	-0.410	-0.506	-0.304	263.904

Table 8. Risk Factor Overall Effect Size

	<i>Number Studies</i>	<i>Point Estimate</i>	<i>Lower Limit</i>	<i>Upper Limit</i>	<i>Q-value</i>	<i>df(Q)</i>	<i>p-value</i>	<i>I-squared</i>
Risk Factor	16	-0.410	-0.506	-0.304	263.904	15	0.000	94.316

Table 9. Risk factor

	<i>Number Studies</i>	<i>Point Estimate</i>	<i>Lower Limit</i>	<i>Upper Limit</i>	<i>Q- value</i>	<i>df(Q)</i>	<i>p-value</i>
Exhaust	8	-0.526	-0.624	-0.410	7.734	1	0.005
Stress	8	-0.280	-0.410	-0.138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선행된 석박사 학위 논문 및 학술지 논문 중 메타분석에 적합한 37편의 논문을 채택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선행된 연구가 없어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 중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혜경 등[28]의 연구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치경[29]의 연구 등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첫째, 보호요인의 전체효과크기는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보호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보호요인의 효과성을 살핀 노치경[29]의 연구에서 보호요인의 전체효과크기가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혜경 등[28]의 연구에서도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과도 일치된다. 따라서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 가운데 보호요인들은 어느 특정된 직종과 구별 없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매우 의미 있는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보호요인군 별 효과크기는 모두 큰 효과크기로 개인특성요인군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다음 직무특성요인군, 조직특성요인군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보호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요인이 직무특성요인과 조직특성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선행연구 가운데 보호요인을 개인특성과 사회·조직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노치경[29]의 연구결과에서 상대적으로 개인특성이 사회·조직특성요인 보다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다. 이러한 결과는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특성요인에 대한 비중 있는 관심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효과적임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셋째, 보호요인군 중 개인특성요인군의 하부요인의 효과크기는 모두 큰효과크기를 보였고, 조직특성요인군과 직무특성요인군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원장리더십과 정서노동을 제외한 모든 하부요인이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노치경[29]의 연구결과에서 개인특성하부요인인 행복감, 자아존중감이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되며, 직무특성 중 조직몰입, 직무만족, 조직특성인 대인관계, 사회적지지 등에서

큰 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다. 이는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은 어느 특정한 하위요인에 국한 되지 않고 구별 없이 거의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넷째, 위험요인 전체효과크기는 큰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는 지난 10여년 간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한 위험요인들이 전반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의 효과성을 살핀 노치경[29]의 연구에서 위험요인의 전체효과크기가 큰효과크기를 나타낸 것과 일치하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혜경 등[28]의 연구에서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섯째, 직무특성 위험요인군인 소진은 큰효과크기, 직무특성 위험요인군인 직무스트레스는 중간효과 크기로 소진이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보다 더 큰 효과크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권혜경 등[28]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소진이 큰효과크기를 보인 것과 일치된 결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노치경[29]의 연구에서도 소진이 큰효과크기를 보인 반면 직무스트레스가 중간효과크기를 보인 것과도 일치된다.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호적 관리자의 역할 뿐 아니라 전문적 지식을 가진 교수자, 연구자, 상담자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다[30]. 하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정책적 지원 부족, 고용의 불안전성, 학부모의 지나친 요구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데[31] 권혜진[32]은 이러한 다양한 직무스트레스가 장기간 누적되면 소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교사가 소진상태에 빠지게 되면 개인의 신체, 정신적 건강을 저하 시킬 뿐 아니라 불안정한 자아개념을 갖게 되고, 보육과정에 있어서도 의욕저하와 직무수행에 악영향을 주게 되어 낮은 질의 보육을 제공하게 될 우려가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8]. 따라서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억제시키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하며 아울러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발생하는 소진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및 관련 정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개인특성요인, 조직특성요인, 직무특성요인 등 모든 보호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개인특성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어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있어 개인특성요인에 대한 비중

있는 관심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둘째,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효과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소진이 직무스트레스 보다 높은 효과성을 보였다. 이는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소진의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특히 회복탄력성에 높은 위험요인인 소진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및 관련 정책적 대응책 마련이 요구됨을 본 연구결과가 시사해 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의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과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여 객관적 결과를 살피기 위한 수량적 통합을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수립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그에 따른 추후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보육교사의 개인특성 즉, 연령, 경력, 담당 영유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지 않고 한 단위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개인특성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다수의 연구가 누적된 후 대상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는 분석 요인을 채택함에 있어 최소 두 개 이상 제시되어 있는 요인만으로 한정하였다. 하지만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간과 될 순 없다. 따라서 추후 제외된 요인에 대한 연구가 누적된다면 이를 포함하여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200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석·박사학위논문과 학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급변하는 보육환경과 시대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영향요인이 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한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Y. S. Kang, M.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7, No.4, pp.325-352, 2011. <http://www.riss.kr.libproxy.dju.ac.kr/link?id=A10443894>
- [2] K. J. Cho, Y. E. Yoo, "The Influence of Teacher's Sensitivity, Happiness, and Job Stress on the Infant's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0, No.2, pp.1-20, 2018. <http://db.koreascholar.com.libproxy.dju.ac.kr/article.aspx?code=352258>
- [3] K. S. Namgung, K. S. Kim,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Teachers' Job Stress and Their Incivility for Infants: Double Mediation Effect of Childhood Teacher's Professionalism Perception and Happi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10, No.4, pp.881-896,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4.62>
- [4] H. Y. Kim, H. S. Yoon, "Affect Self-esteem and Job Str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hild Abuse Awarenes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7, No.4, pp.547-566, 2016. DOI: <http://dx.doi.org/10.22143/HSS21.7.4.28>
- [5] S. Y. Yang, "Effects of Job Stress Perceived by Child Care Teachers on Psychological Burnout: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 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pp1-73, 2019.
- [6] R. Le Cornu, "Building resilience in preservice teacher",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25, pp.717-723, 2009.
- [7] Q. Gu, C. Day, "Teachers resilience: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23, pp.1302-1316, 2007.
- [8] S. J. Lee, J. H. Kim, "The Effects of Day Care Teacher's Resilience on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4, No.2, pp.49-73, 2017. DOI: <http://dx.doi.org/10.18023/kjece.2014.34.5.005>
- [9] J. H. Tak, H. M. Kang, "The Impact of self-esteem and resilience on the happiness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34, No.5, pp.107-128, 2014. DOI: <http://dx.doi.org/10.18023/kjece.2014.34.5.005>
- [10] H. I. Hwang, J. H. Tak, H. M.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s Happiness and Their Self-Esteem in High and Low Gratitude Group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9, No.1, pp.299-320, 201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5871>
- [11] B. H. Park, M. K. Nam, "The mediated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happiness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Th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Vol.16, No.4, pp.1-24, 2017. 1410-ECN-0102 -2018-300-003946178
- [12] H. J.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n Resilience in Pre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pp1-39, 2016.

- [13] K. M.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Job Environment and Happiness : Focusing on Employer Supported Child Care Center Teacher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pp1-80, 2019.
- [14] S. Y. Hong, "Impacts of Child care Teachers' Efficacy and Child care Directors' Emotional Leadership on Teacher Resilienc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1-102, 2018.
- [15] C. Lee, "The effect of child care teachers' resilience, personal relations within the child care center on role performance",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pp1-100, 2017
- [16] H. S. Jang, "The Influ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b-Exhaustion and Resilience on Teacher-Child Interaction", Master's thesis, G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Korea, pp1-64, 2019.
- [17] Y. K. Kim, "Resilience of Child Care Teachers Teacher Efficacy Respects Young and Child Rights Effect on Execution",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pp1-89, 2019.
- [18] J. H. Kim,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Professionalism Awareness and Resilience on the Role Performance",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Korea, pp1-78, 2019.
- [19] K. S. Kim,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Labor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104, 2017.
- [20] H. S. Park,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Resilience and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pp1-78, 2018.
- [21] Y. M. Noh, "Impact of childcare teacher stress on the attachment formation between teacher and infant :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Master's thesis, Woosuk University, Wanju, Korea, pp1-100, 2019.
- [22] H. S. Kang,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silie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Job Stress",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pp1-91, 2019.
- [23] J. K. Oh, S. L. Kim, "Mediating Effect of the Childcare Teacher's Resilience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Vol.31, No.1, pp.81-90, 2020.
DOI: <http://doi.org/10.7856/kjcls.2020.31.1.81>
- [24] I. A. Yang,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Communication Ability, the Exchange Relation between Director and Teacher, and the Turnover Intention", Master's thesis, Kwangju Women's University, Kwangju, Korea, pp1-85, 2017.
- [25] J. H. Littell, J. Corcoran & V. Pillai,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 Research on Social Work Practice, Vol.18, No.5, pp.525-526, 2008.
- [26] J. Cohen "The earth is round (p <.05)", American Psychologist, Vol.49, No.12, pp997-1003, 1994.
- [27] R. G. Orwin, "A Fail-safe N for Effect Size in Meta-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Statistics, Vol.8, pp.157-159, 1983.
- [28] H. K. Kwon, S. H. Kim, S. H. Park, "A Meta-Analysis of the Correlates of Resilience in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23, No.1, pp.100-109, 2017.
DOI : <http://doi.org/10.22650/JKCNR.2017.23.1.100>
- [29] C. K. Roh,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Adult Resilience: Focus on Protective and Risk Factors", Doctoral'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pp1-188, 2018.
- [30] H. W. Lee, "A Study on the Personality Disposi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ffecting the Teachers' Belief of 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29, No.2, pp.139-153, 2008.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084195>
- [31] H. S. Yoo, J. H. Kwon, "Structural Relations among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Teacher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21, No.1, pp.113-132, 2017.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446097>
- [32] H. J. Kwon, "The Effects of Child Care Teachers' Job Stress on Job Turnover, Occupational Turnover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Personal Accomplishment", Korea J. Community Living Science, Vol.19, No.4, pp.597-609, 2008. G704-001337.2008.19.4.006

문 동 규(Dong-Kyu Moon)

[정회원]



- 2002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신학석사)
- 2007년 2월 : 목포대학교 레저스 포츠과(체육학박사)
- 2011년 2월 : 충북대학교 아동복지과(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삼육보건대학교 아동보육과 부교수

<관심분야>

영유아교육, 청소년교육, 여가문화